



덴마크 코펜하겐의 명물

TIVOLI PARK

이화숙 디자이너 · 저널리스트 leeheesook@hotmail.com



덴마크 코펜하겐 중심지에 있는

티볼리(Tivoli)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오락공원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1843년 8월 15일에 문을 연 이 공원은 매년 약 400만 명이 4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개장되는 이곳으로 몰려든다. 티볼리공원에서의 모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은 1843년 10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중국 황제가 등장하는 동화 나이팅게일의 영감을 얻었다."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한 티볼리공원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펜하겐은 유럽의 수도와 비교해서 턱없이 낙후된 12만 명의 시골 도시였다. 여기에 시민공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게오르크 카르스텐센(Georg Carstensen)이다.

그는 1812년 8월 31일 태어났다. 아버지가 알제리 영사였으므로 어린 카르스텐센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근동(현 중동)에서 보냈는데 당시 동양의 신비에 도취했다.

티볼리는 코펜하겐의 공원 이름

1839년 카르스텐센은 코펜하겐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간행물인 '포르테페이양(Portefeullen)'과 '피가로(Figaro)'를 발행했다. 이 일에서 그는 인기 있는 오락의 '감'을 배웠다. 즉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된 그랜드 볼, 춤, 음악에 큰 볼꽃놀이를 곁들인 무료 음악 행사들에 구독자들을 수시로 초대함으로써 간행물 홍보를 촉진하는 전략이었다. 행사 대부분의 지휘자는 한스 크리스티안 룸비(H. C. Lumbye)였다.

카르스텐센은 음악회를 확대해 상설 음악공원 설립 방안을 생각해 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오락공원들이 정기공연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카르스텐센은 공원 설립안을 들고 덴마크왕 크리스티안 8세를 찾았다. 그러나 국내에 혁명과 폭동이 발발한 때여서 왕은 하찮은 공원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카르스텐센은 "국민들이

스스로 즐거우면 정치에 흥미를 잃게 마련"이라는 논리로 왕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외항 성곽지역에 오락공원 설치를 허락받았다. 그가 1843년 티볼리와 바옥스홀(Tivoli & Vauxhall), 즉 짧막하게 '티볼리'를 세울 때 지휘자 룸비와 찬란한 조명도 동행시켰다. 1848년 잠시 카르스텐센은 슈렐스비히(현재 독일)에 있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티볼리에 자신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았다. 1847년 그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아말리가데의 겨울 티볼리 카지노(Winter Tivoli Casino)도 파산했다. 그럼에도 덴마크 역사책에 카르스텐센은 버라이어티쇼와 덴마크의 첫 풍자극 레뷰 출생자로 이름을 남긴다. 티볼리와의 불화로 6년 만에 티볼리를 떠난 그는 당시 덴마크 식민지인 서인도섬으로 떠나 군대에 들어갔다. 또 미국 뉴욕에서 짧은 시기를 보내면서 독일 건축가 카를 길데미아스터(Karl Gildemeister)와 1851년 국제박람회를 위한 크리스탈 팰리스(Crystal Palace) 디자인도 하였다. 1855년 카르스텐센은 실의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티볼리를 방문했을 때 대표원은 그의 입장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국왕의 신임만은 변함이 없어 1km 떨어진 곳에 새 공원 건립을 허락받았다. 그러다가 '알람브라바이(Alhambravej)'라는 이름이 붙여진 무어 스타일의 대형 무대 두 개와 독일 바이에른 양식의 양조장 홀을 설계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857년 1월 4일 44세로 숨을 거뒀다. 그는 코펜하겐의 가르니슨 묘지에 묻혔다.

티볼리 광경, 꽃과 정원

티볼리의 전통을 세운 카르스텐센의 역사는 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티볼리 방문객 84%가 오락공원보다 나무, 꽃, 정원들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한다. 나무, 꽃, 정원들의 경치와 디자인은 티볼리 사업이 지향하는 4개의 대들보 가운데 하나다. 다른 3개는 놀이, 오락, 레스토랑이다. 꽃과 정원은 11명의 정원사가 관리한다. 365종의 식물과 꽃, 40종의 나무, 10만 그루의 구근 식물 등이 있다. 호숫가의 산사나무는 200년 이상 된다. 티볼리에는 새 나무를 심지 않는 한 옛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는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방문객들로 인해 훼손된 나무를 대신하여 매년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진다. 따라서 티볼리의 정원은 건물과 놀이기구 속에 산재하며, 유일한 풍경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 차는 아름답고 희귀한 진달래꽃 사이로 달린다. 티볼리 호수는 이곳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 가운데 하나다. 이 호수는 약 6000㎡의 영역을 점령하고, 약 1200만 리터의 물을 함유하며, 가장 깊은 곳은 6m이다. 호수의 끝에 자리한 파르테레 가든(Parterre Garden)은 30개의 분수를 자랑하며, 이것은 덴마크 현대 디자인의 아이콘인 포울 헨닝센(Poul Henningsen)이 설계했다. 성 요새들의 서쪽 외곽에 세워진 티볼리는 부드럽게 경사진 경치로 매력을 끌며, 중앙 가로수와 오솔길에 교차하는 조망을 제공한다. 공원은 구부러진



오솔길과 상상력이 더해진 배열로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 가장 인상 깊은 건물은 이국의 꽃향기에 둘러싸인 팬터마임 극장이다. 이 극장은 티볼리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중국 양식으로 공작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음악당을 향한 길에는 티볼리의 음악 분위기를 만든 룬비의 동상이 서 있다. 룬비는 티볼리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항상 손에 바이올린을 쥐고 매일 음악회를 열었다. 한때 오케스트라는 매년 50여 회의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 예후디 메뉴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등 세계 음악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핀란드의 젊은 장 시벨리우스가 처음으로 그의 e단조 교향곡을 연주한 곳도 이곳이다. 발레페스티벌도 음악회 못지않게 국제 명성을 얻는다.

티볼리공원의 또 다른 야외공개 무대로 플레넌이 있다. 19세기에 모험심 가득 찬 덴마크인들이 이곳에서 곤돌라를 매단 대형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로리츠 요한센은 19번이나 하늘에 올랐다. 티볼리의 흥행오락 시설은 거대하다. 글라스홀에는 조제핀 베이커, 마를레네 디트리히, 모리스 슈발리에 등 유명인들이 초대되기도 했다. 역사 기록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공연하는 예술가에게는 영광의 휘장을 주는데 1860년 엘비라와 기셀 마디건의 줄타기 묘기에 반한 크리스티안 9세는 덴마크 최고의 영예인 다네보르(Daneborg) 문장 리본의 황금십자가 훈장을 그들에게 수여하였다. 엘비라 마디건(Elvira Madigan)은 우리 세대의 감상적 영화 애호가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이다. 스웨덴 장교와 덴마크 댄서의 사랑이 모차르트 음악과 함께 전개되는 영화는 결국 배고픔을 이겨 내지 못한 그들이 야외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난다.

티볼리 소년 호위병과 조명

소년 호위병은 티볼리의 또 다른 명물로, 1844년 카르스텐센에 의해 조직되자마자 코펜하겐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 사회 계층의 소년들이 입학시험을 쳤는데 룬비는 티볼리의 첫 음악감독이자 소년 호위병들의 첫 음악 선생이다. 월급 없이 하루 맥주 0.5리터와 두 개의 샌드위치를 받고 최고의 음악교육을 1년 동안 무료로 실시했다. 소년 호위병들은 드럼과 행진 외에 시벨리우스, 리하르트 바그너, 카를 닐센 등 광대한 클래식 작품을 숙달한다. 따라서 덴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많은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호위병

경력을 지냈다.

그 당시 티볼리 소년 호위병들은 매일 공원을 행진하며 교대의식을 하였다. 그때 호위병 대장이 하얀 아랍 말을 타고 선도하는 가운데 깃발을 든 21명의 호위병과 세 대의 대포를 앞세운 14명의 해군 호위병이 따랐다. 이 공원은 차츰 국제행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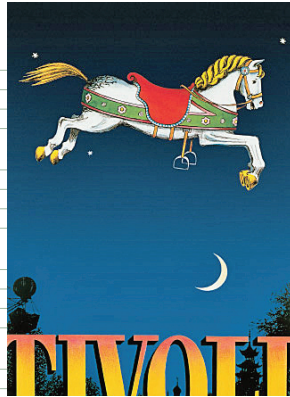
조명이 정원들로 가득 찬 티볼리는 황혼이 지면 마법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 비밀은 12만 개의 백열전구들에 있다. 금으로 장식된 큰 램프는 남쪽 호수에서 빛을 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불꽃나무처럼 금색·주황색·흰색의 램프가 켜진다. 어둠이 깊든 후에도 사람들은 램프로 비친 분수와 조명에 빛나는 건물을 보려고 몰려든다. 특히 낮은 강도의 조명이 아늑하게 흐트러지면서 낭만 분위기를 영감하게 하는 부드러운 광열을 보장한다. 티볼리 창립자 카르스텐센에게 조명은 절대



개념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조명이 음악, 연극과 함께 오락에 인상 깊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조명에 관한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여러 세대가 티볼리의 조명계획을 위해 전통을 지키며 개발시켰다.

건물, 오락장, 분수, 나무, 가로수들과 티볼리의 호수를 따라 빛을 발하는 조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램프는 티볼리 글로베(Tivoli Globe)다. 이 조명은 티볼리가 선정한 컬러로서 1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EU)의 법에 따라 모든 백열전구는 2016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티볼리는 LED 조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티볼리에는 네온램프가 없다. 음악당을 장식하는 3000개의 램프들은 1953년까지 사용하던 오리지널 가스조명처럼 깜박인다. 티볼리의 분위기를 위해 나머지 램프들도 전부 디자인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된 램프도 있다. 상상의 그늘을 만들게 하는 램프, 움직이는 램프, 물 위의 램프, 비간접성 조명과 컬러 조명 디자인은 티볼리의 전형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조명은 거의 10배로 확대된다.

오래 전 안데르센 생가인 오덴세를 방문할 때 반블라드 집의 푸른색 천장을 바라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티볼리의 '야생 백조' 회전목마를 타며 느끼던 그 경험들은 매년 봄이 오면 나를 유혹시킨다. 티볼리로 가져온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제임스 딘이 사랑을 속삭이던 그 회전목마를 타고 티볼리를 비추는 은하수의 별이 되자! ①



티볼리의 모든 것!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락공원의 하나다.
- 1834년 게오르그 카르스텐센이 설립했다.
- 면적은 8만 2717㎡이다.
- 전통이 있는 회사지만 항상 혁신을 도모한다. 특히 정원에 우선권을 둔다. 카르스텐센은 “티볼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1년에 약 400만 명이 방문한다. 3개의 시즌은 한여름, 티볼리 할러윈, 티볼리 크리스마스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인기가 가장 높으며,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인기를 끄는 오락공원이다.
- 1914년 제작한 롤러코스터는 세계에서 여전히 작동되는,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의 하나이다.
- 글라스홀은 1944년 독일의 태업 때 발생한 화재로 소멸되었다가 그 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났다. 1863년부터는 음악당이었으나 1902년 극장, 레뷰 등으로 글라스홀 이름 아래 사용되었다.
- 2005년에 개장한 수족관은 북유럽에서 가장 긴 바다 수족관으로, 1600종 이상의 열대어가 있다.
- 약 850그루의 나무가 있다.
- 티볼리 크리스마스에는 1000그루의 크리스마스 나무와 3.5km의 전나무 화환이 있다.
- 티볼리 할러윈 시기에는 약 1만 1000개의 호박과 6000개의 장식호박들이 정원에 전시된다.
- The Danish Giant Pumpkin Championship이 티볼리 할러윈 동안 개최된다.
- 티볼리가든은 1844년 이후 존재했으며, 소년을 위한 덴마크 최고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 1997년 시작된 금요일 록음악은 여름 시즌에 덴마크와 국제 음악가가 잔디밭에서 공연하는 라이브 음악이다.
- 이곳에서 공연한 유명인은 말레레네 디트리히, 머라이어 캐리, 에릭 클랩튼 등이다.
- 정원을 방문한 유명인은 덴마크 여왕과 가족, 힐러리과 빌 클린턴, 마이클 잭슨, 1950~1960년대 디즈니랜드를 위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자 방문한 월트 디즈니이다.
- 4월 중순~9월 중순과 10월 2주일 티볼리 할러윈, 11월 중순~12월 말 티볼리 크리스마스로 1년에 220일 열린다.
- 건축 디자인은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피한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건축의 현대 움직임에도 티볼리는 자신만의 해석을 한다.
- 색상과 상세함은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은 동양색을 띤다.
- 입구가 3개인 공원이다.
- 정문 입구와 파빌리온은 1890년부터 티볼리 정원 및 코펜하겐 도시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 1844년 지은 팬터마임 극장은 티볼리에서 보호된 유일한 건물이다. 중국 양식의 디자인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 티볼리 호숫가에 일본 양식의 파고다(1900년)도 유사한 중국풍을 띠고 있다.
- 1909년 지은 님브(Nimb)는 인기 있는 무어 양식이다.
- 1956년부터 음악당은 근대풍인 미니멀리스트의 콘크리트 빌딩이다. 컬러와 조명이며, 티볼리의 이국 색을 띠는 디자인에 적합하다.
- 종업원은 비성수기에 500명, 성수기에는 1500명이다.
- 멀티 라이드 티켓은 1983년에 소개되었다.
- 약 30만 명의 회원권 소지자는 무료 공원 입장과 함께 다른 혜택도 받는다.
- 공공 유한회사로, 코펜하겐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다.
- 1년 매출액은 약 700만 덴마크 크로네이다
- 2012년 온라인 카지노(www.tivolicasino.dk)가 개통되었다. ①